



무더위 날린 승리의 맛 홍익대 야구부 선수들이 18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제50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 결승에서 단국대를 7-4로 꺾고 대회 정상에 오른 뒤 환호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연승 광주 FC, 6위 올랐다

플키퍼 자책골로 성남전 승

21일 수원과 홈경기



프로축구 광주 FC가 연승을 달리며 6위로 올라섰다.

광주 FC가 지난 17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6 K리그 클래식 성남 FC와의 26라운드 경기에서 상대 플키퍼 박준혁의 자책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제주에 이어 성남 원정에서도 승점 3점을 더한 광주는 9승 8무 9패(승점 35점)로 리그 6위로 올랐다. 수원 FC에 5-3으로 달미를 잡힌 제주는(10승4무12패·승점 34) 7위로 떨어졌다.

전반 7분 여름의 중거리 슈팅으로 공격의 포문을 연 광주가 전반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면서 성남을 압박했다. 전반 34분 조주영의 왼발 슈팅이 성남 골대로 향했지만 플키퍼 박준혁이 몸을 날려 공을 잡아냈다. 이어 본즈의 환상적인 통패스가 나왔지만 상대 수비수 틸에서 주현우가 마지막 결정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0-0에서 시작된 후반 6분. 여름이 정교하고 시원한 중거리 슈팅을 날렸지만 플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그러나 1분 뒤 광주에 행운이 따랐다. 새로운 외국인 선수 본즈가 복덩이가 됐다. 중앙에서 상대 수비수에 막힌 김민혁이 뒤로 공을 흘렸고, 공을 받은 본즈가 오른발로 인사이드 슈팅을 시도했다. 본즈의 발을 떠난 공은 골대에 이어 플키퍼 박준혁에 맞은 뒤 골라인을 넘었다. 골은 본즈의 득점이 아닌 자책골로 기록됐다.

후반 16분 남기일 감독이 첫 교체 카드를 빼어 들었다. 주현우를 대신해 이민기를 투입한 남 감독은 29분에는 공격수 조주영을 불러들이고 수비수 오도현을 올리면서 수비를 강화했다. 이어 후반 32분에는 부상에서 돌아온 베테랑 이종민을 정동윤과 교체해주며 리드 지키기에 나섰다.

그리고 후반 공방전 끝에 추가골 없이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광주가 승점 3점을 더해 6위로 상승했다.

원정길에서 2승을 안고 온 광주는 21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 FC를 상대로 3연승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야구 도시 걸맞게 인프라 확충”

나훈 초대 통합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



“체계적이고 공정한 협회 운영과 인프라 확충으로 야구 도시 위상을 높여겠습니다.”

제50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가 18일 홍익대의 우승으로 13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한국대학야구연맹과 함께 이번 대회를 주관한 광주시야구협회의 나훈(사진) 회장은 “성공적이고, 흥미로운 대회였다”고 총평했다.

나 회장은 “대회가 매끄럽게 잘 진행됐다. 그리고 극적인 승부들이 연출되면서 흥미로운 대회가 됐다”며 “대회가 생중계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 시와 협의를 해서 2년에 한 번 씩은 대학야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광주에서 열린 두 번째 대학야구 열전이었다. 협회는 지난 2014년 2016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테스트 이벤트 대회로 제48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를 개최했다. 성공적인 대회였다는 평가지만 장소 부족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 게 아쉽다.

나 회장은 “이번 대회에 31개 대학이 모두 참여해서 광주를 찾았다. 하지만 무등야구장 밖에 활용하지 못하면서 리그전으로 치러지 못한 게 아쉽다. 리그전으로 진행이 되면 참가팀들이 광주에 더 많이 머물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스카우트 출신의 관심이 높은 5·6월에 대회를 유치하고 싶다”고 밝혔다.

큰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나 회장은

은 앞으로 더욱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나 회장은 지난 16일 초대 통합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으로 선출됐다.

나 회장은 “조직의 성격도, 규모도 다르다. 3개 단체 대표들과 현실에 맞게 인사·재정 등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 소프트볼은 전국 최강의 성적을 내고 있다. 소프트볼 활성화와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해 정식 리틀과 유소년 야구 발전에 대해 정식으로 협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생활야구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있다. 나 회장은 “생활 야구 팀이 600개 정도가 있다고 하지만 정식으로 등록된 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팀과 개인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심판도 최소 2심으로 운영하는 등 더 많은 동호인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 광주일보가 개최하는 지역 사회인 야구 축제 무등기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협회와 지역 야구·소프트볼 발전을 위해서 개인적인 투자와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 야구 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홍익대,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 정상

31개교 광주서 13일 열전

결승전 단국대 7-4로 꺾어

8회 번트 승리 ‘신의 한 수’

예비 프로 나원탁, MVP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야구, 1학년 막내 투수가 끝냈다.

홍익대가 18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제50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 결승에서 7-4로 단국대를 꺾고 대회 정상에 올랐다. 하계리그 우승팀인 홍익대는 시즌 2연패에 성공했다.

9회 마지막 아웃카운트까지 대통령기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접전이 펼쳐졌다.

3-2의 1점차 승부에서 홍익대가 7회 장성훈의 몸에 맞는 볼로 공격을 시작했다. 원혁재의 내야안타와 전세민의 희생번트로 만들어진 1사 1·2루에서 최태성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왔다. 상대 실책을 더해 3점

을 뽑은 홍익대는 8회에도 1점을 보냈다. 지명타자 최우혁이 2루타로 출루를 하자 장재근 감독이 대주자를 투입한 뒤 번트 작전을 내리며 1점을 추가했다.

번트로 만든 1점의 가치는 9회 빛을 발했다. 7-2에서 9회 마지막 수비에 나선 홍익대가 대타 양동현에게 솔로포를 맞았다. 2루타 두 개를 연달아 허용하면서 7-4. 불넷으로 1루까지 채워졌다. 투수를 교체했지만 이번에도 불넷이 나오면서 무사 만루가 됐다. 역전 주자까지 나간 위기 상황에서 장 감독이 1학년 투수 설재민을 마운드에 올렸다.

씩씩한 막내는 단국대 2번 양찬열과 3번 염정식을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4번 최병희까지 2루수 땅볼로 처리하면서 형들에게 우스트로피를 안겨줬다.

승리를 지휘한 홍익대 장재근 감독은 “마지막까지 어려운 승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8회 번트 작전을 냈다. 1점을 낸 게 결과적으로 주효했다. 마지막에 위기가 있었지만 선수들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며 “팀을 위해서 냉정하게 투수 교체를 했다. 선수에게는 미안하지만 팀을 위해서 결단을 내렸다. 마지막에 던진 투수가 체구도 작고 어리지만 배정이 있다. 선수들이 잘 해서 우승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뜰직하게 안방을 지킨 포수 나원탁은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나원탁은 “마지막 땅볼 타구가 나올 때 안타가 되는 줄 알고 긴장을 많이 했다. 어려운 9회를 넘기고 우승을 하게 돼서 기분이 좋다”며 “고생을 많이 해준 후배 안도원 선수가 최우수선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큰 상을 받게 됐다. 처음 받는 최우수선수상이다. 함께 고생해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는 22일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를 앞두고 있는 나원탁은 프로무대에서 안정감을 보여주는 투수를 리드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나원탁은 “어느 팀에, 어느 순번에서 지명을 받게 될지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된다.

진감읍 선배처럼 좋은 수비를 하는 포수가 되고 싶다. 장재근 감독님에게 혼도 많이 받고 많이 배웠다. 프로에서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지난 대회 우승팀인 성균관대를 비롯해 춘계리그 우승팀 경성대, 대학선수권 우승팀 동국대, 하계리그 우승팀 홍익대 등 31개교가 참가해 6일부터 열전을 벌였다.

◇제50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 시상내용

- ▲최우수선수상 = 나원탁(홍익대 포수)
- ▲우수투수상 = 박지훈(홍익대 투수)
- ▲감독상 = 신병률(단국대 투수)
- ▲수훈상 = 설재민(홍익대 투수)
- ▲타격상 = 노병훈(건국대 지명타자)
- ▲타점상 = 이호연(성균관대 지명타자)
- ▲도루상 = 최인표(세한대 외야수)
- ▲홀런상 = 김시운(인하대 외야수)
- ▲감독상 = 장재근(홍익대 감독)
- ▲공로상 = 김영환(홍익대 총장)
- ▲심판상 = 이승철(대한야구협회 심판)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의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